

여순사건 72년만에 첫 '민·관·군·경 합동추념식'

순직경찰 유족 올해 처음 참석
19일 여수 이순신광장서 열려
갈등·반목 딛고 화합·상생 기원

여순사건 발발 72년을 맞는 오는 19일 처음으로 민·관·군·경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추념식을 개최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연다.

지금까지 열린 추념식은 순직 경찰 유족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사건 발생으로 민간과 경찰 등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70여 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 대표가 참석하며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힌 후, 올해는 순직 경찰 유족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이후 최초로 민·관·군·경이 하나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이 열리게 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난해 500여명이었던 참석자를 100명으로 줄였다.

차단봉을 설치하고 방역공간을 마련해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와 좌석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추념식 행사는 4대 종교단체 대표의 추모와 여수 시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영상 상영, 추모 공연,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묵념 사이렌을 10시 정각에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여순사건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하나님 합동 추념식을 열게 된 만큼 70여 년의 세월과 시대적 그림자에 가려졌던 아픈 과거가 이른 시일 내 진실을 되찾길 바라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19일 오전에 민간인 유족회와 군·경 대표가 참석하는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71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 등 내빈들이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도 주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부 6개 시·군 민간인 유족회 중심의 합동 위령제를 시작했으며, 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여수와 6개 시·군 유족회장이 참석해 행사 일정을 사전에 논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간인 유족들만 참석하는 전

남도 주관 위령제와는 달리 여수에서는 그동안 긴 세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올해 최초로 민·관·군·경 합동 추념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합동 추념식과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사랑 상품권 300억 전량 완판 100억 추가 발행

보성군은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보성사랑상품권이 300억원어치 전량 소진돼 1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발행분은 오는 1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할인율은 연말까지 10%가 유지된다.

연말에는 카드형 상품권도 선보인다.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을 고려해 은행창구에서도 판매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보급을 위한 유통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카드형 상품권이 보급되면 이용성이 확장 돼 소상공인 상권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내년 여수서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기후변화 총회 유치 도움

내년 9월 여수에서 51개국 156개 도시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은 지난 8일 도시환경협약(UEA·Urban Environmental Accords) 사무국 윤원태 사무총장과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7월 UEA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정상회의 개최지로 여수가 최종 확정됐다.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는 내년 9월 중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회원도시와 UN기관, 시민 등 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51

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된 도시환경협약은 도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격년으로 도시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개·폐회식을 비롯한 분회와 주제별 분과회의, 집행위 등 회의가 열리며 여수시는 UEA 여수선언문을 발표하고 의장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기후환경 토크콘서트에서 권 시장은 국내외 회원 도시에 여수를 소개하고, 여수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우수사례를 알렸다. 토크 콘서트는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UEA사무국은 영상을 영문 자막 작업 후 국외 회원도시에도 배포 홍보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열어 여수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COP 참가국과 UN기구 등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COP28



권오봉 여수시장과 윤원태 UEA사무국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시장실에서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남해안남중권 유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는 매년 197개 당사국이 모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로,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제28차 총회는 2023년 하반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 쌀 생산량 17% 급감 짚은 비로 일조량 부족 탓

올해 구례지역 쌀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1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평년 10a당 500kg 이상 생산됐던 쌀이 올해는 19%(95kg) 줄어든 405kg이 생산됐다.

이는 구례지역 총 벼 재배면적 2230ha 가운데 39.5ha의 표본구역에서 지난 7일 기준 수확량을 분석한 결과다.

생산량이 떨어진 것은 짚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해 포기당 새끼치기 평년 18개였던 것이 15개로 줄었고, 이삭당 낱알 수도 110개에서 105개로 감소했다.

벼 생육기간 150일 동안 59일이나 비가 내려 일조량이 부족, 온도가 떨어진 것이 주요인이다.

오지경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이상 기후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식량작물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과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 정부는 감산정책을 쓰고 있고, 세계 무역기구의 쌀 의무수입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는 벼 대신 콩·옥수수 등 수입 대체 작물의 확대 재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례읍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65) 씨는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벼 대체 작물 전환 정책과 병행해 쌀 소비대책도 함께 펴면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만 스카이큐브 효율적 활용방안 찾자... 16일 시민 공청회

유튜브 중계... 댓글로 의견 제시 가능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경전철(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카이큐브의 운영방안과 시설물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7월 대시민 설명회를 연데 이어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시민인수위원회는 스카이큐브 운영을 위해 경영분석과 운영방식, 경영 활성화 방안과 장애 확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시설물 인수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열어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최소인원 이내로 참석을 제한해 열린다. 순천시 공식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4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스카이큐브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지난해 3월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요구했고 순천시는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냈다.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정리됐고 순천시는 본격적으로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맑고 깨끗한 우리 땅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부발전의 <신재생로드맵 3025>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복에너지 **wpp** 한국서부발전(주)